

땅, 몸, 그리고 여성

- 미래주택을 위한 이념적 대안으로서 -

김 성 우*
Kim, Sung Woo

1. 거주

환경적 위기가 심각하다는 표현 자체도 너무 난무하다 보니 우리의 귀와 눈을 무디게 하는 것 같다. 지구가 정말로 환경문제 때문에 끝장날 것인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끝장난다고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끝장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업화와 개발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인류는 1-2세기를 살아남기 힘들다는 진단이 이미 공공연하게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최소한도 백년 정도는 더 버틸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배짱이 되어 버린 듯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언제 정말로 지구가 끝장날 것인가에 달려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종을 울리는 의미이어야 하며 환경의 문제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땅위에서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문제의 어려움은 오로지 인간의 사는 방식에서만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를 개선시키고 환경적 종말이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지 종말의 시점을 예측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문제란 지금까지 우리가 땅 위에서 제대로 거주해 왔는가 하는 물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이 문제로서 부각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땅위에서 거주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간은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제야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상적 거주함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면 무엇이 정상적인 거주함이며 우리는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물음이 이어지겠으나 그것도 이곳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실패의 시작이 서구식의 근대적 세계관과 산업화 이후의 생활방식이 시작된 19세기 전후이고 그러한 가치관이 제3세계에 팽배해지면서 온 지구가 실패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정상적 거주함의 실패는 바로 서구적 근대문명의 영향과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와서 실패의 원인을 서구식 근대적 세계관에 돌려버리려는 것은 아니다. 서구식 근대적 세계관이 지금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이상 우리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환경문제는 이미 그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발단의 지역적 연유를 캐묻기에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고 온 인류 공통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인간이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함에 실패하고 있다면 주택의 문제가 그러한 거주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반대로 거주함의 핵심적 위치에 주택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주택은 거주함의 입장과 태도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의 근대적 주택은 근대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어김없이 실현시킨 결과이다. 그렇다면 잘못 거주하고 있음의 현상은 우리의 주택에서 먼저 찾아지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택이 잘못 거주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택에서 무엇이 잘못 거주함의 사례가 되고 또 그것이 고쳐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답을 당장 구하지 못하더라도 환경문제가 심각한만큼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 연세대 교수

없는 것이다. 미래의 주거를 바라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면, 이러한 이념적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주택은 기술적 개선에 있거나 새로운 꾸밈과 장치에 있기보다 잘못 거주함의 수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문제의 근본은 기술적이거나 가시적이기보다 우리속에 내재해 있는 이념과 가치관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잘못 거주함의 현상과 원인을 들추어 보고 새로운 이념적 방향모색의 근거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일에 실패한다면 아무리 장미빛의 미래주택의 꿈을 꾸어 본다고 한들 무의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못 거주함은 결국 거주함의 끝을 예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주거는 현재 주거에 대한 이념적 수술을 필요로 하지 표피적 약바르기로 대체될 수 없다.

2. 땅

근대적 거주관의 잘못된 인식중의 하나는 땅에 대한 문제이다. 땅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땅이었으며 인간의 땅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때와 장소마다 다른 것이었고 이러한 땅에 대한 입장이 근대적 세계관에서 잘못 설정되어 다른 것이다.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주 결과물을 낳고 말았다는 진단이다. 인간의 거주는 땅을 전제로 한 것이고, 거주함은 바로 땅에 거주함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땅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면 인간의 거주함 자체가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대적 거주관에서는 땅을 인간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인간이 땅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 땅은 인간을 위해 소산을 내고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바탕일 뿐이며, 인간은 자신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 땅에 대해 필요하면 얼마든지 변형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 땅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었고, 정신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대상일 뿐이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땅은 쓰임과 이용의 대상이었고 땅과 인간사이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억압구조이었다. 자원고갈도, 환경오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구 생명의 위협도 땅에 대한 같은 억압구조의 결과 이외에 아

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땅에 대한 입장이 구약의 창세기적 세계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을 이제와서 정확히 캐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에 대한 서구적인 전통, 특히 근대문명에서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인간중심적 이성주의에 그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만은 인정되어야 한다.

땅에 대한 억압적 지배구조는 점진적으로 땅을 죽음에 몰아넣고 있었고, 땅의 죽음은 곧바로 인간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확인한 것이 바로 환경문제의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땅의 입장에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인간이 그동안 땅을 무자비하게 강간하고 있었다고 표현할 지도 모른다. 땅의 의사는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인간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땅의 생명과 내재적 질서를 너무 심하게 유린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땅에 대한 강간행위이다. 땅, 공기, 물이 모두가 인간의 강간행위의 결과 처참하게 파헤쳐지고 더럽혀지고 증병을 앓으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인간의 잘못 거주함의 시작은 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땅은 물질만이 아닌 생명이고 정신이며 인간 자신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며 인간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천이다. 따라서 땅은 바로 인간과 같은 몸이고 땅과 인간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이다. 땅은 내 몸을 만들고 공기는 생명의 기운을 주고 물은 흐름으로서 몸을 유지시키는 것이며 이 모두가 바로 내 몸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본질인 것이다. 근대문명에서의 땅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대상적이고 도구적이었으며 땅 자체의 정신성과 생명성, 그리고 나와 동질의 가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인간이 땅위에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 땅과 인간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그 관계가 깨지면 모두에게 파산이 남을 뿐이다. 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어김없이 인간의 주택에도 반영된다. 거주함의 인식은 가장 정확하게 주택에서 나타난다. 근대의 주택은 이러한 땅에 대한 근대적 사

고방식의 표현이었다. 근대건축의 관점도 이러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근대주택도 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었다. 주택은 물질적 처리의 문제였고 정신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땅이 물질이듯이 물질적 구성체였고 땅이 도구이듯이 인간을 위한 도구였다. 땅이 인간을 위해 마음대로 조작되듯이 주택에서도 모든 조장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도 땅의 재료를 쓰고 땅의 기운으로 유지되지만 땅과는 무관한 인간만을 위한 조장의 결과일 뿐이다. 인간의 집은 땅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 땅을 사용하고 땅 위에 짓되 땅이 무시되고 유린된 결과로서의 집이 되었다. 지금의 인간의 거주방식은 땅에 내리고 있어야 할 뿌리가 없다. 건축가는 건물의 형태와 공간 그리고 기능에 대해 관심을 쏟으며 자신의 개인적 표현을 하기에 바쁘고 그것은 물질적 대상과 도구로서의 관심이며 자신의 이름을 위한 성취욕은 몰라도 땅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신적인 뿌리내림과 관계맺기에서 출발된 처사는 아니다. 기계적 조작에 의해 자연과는 잘 차단될수록 좋은 집이며 건축가의 디자인에 의해 시각적으로 보기좋은 집이 좋은 집이며 생활의 요구와는 무관해도 싸고 투자가치가 있고 적당히 화려한 집이 좋은 집이다.

근대적 인간은 거주함과 주택만들기에 있어서 땅의 소리를 듣는 일에 실패하였다. 지금과 같이 땅이 무시되고 단절된 상황에서는 땅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인간에게 들리지 않는다. 땅은 사용되고 유린될 수 있을 뿐 상호교감에 의한 거주가 될 수 없다. 인간의 땅 위의 거주가 잘 못되지 않으려면 땅과 인간의 상호교감에 의한 협동적 관계맺음이 필수적이다. 거주함은 땅과 같이 거함인 것이다. 근대문명 이전까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간의 거주는 이러한 땅과의 관계맺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잘못 거주함에 의한 파멸이 예고되지 않았다. 근대문명의 땅에 대한 인식의 부조리와 인간중심적 태도는 철저히 파헤쳐지고 반성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적 거주에 대한 희망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거주관이 이미 오랜기간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

왔고 그러한 사고방식에 의한 주택에서 너무 오래 거주해 온 결과 우리는 다시 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주함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부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미래의 주택은 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관계맺기에서 출발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가 없다. 미래의 주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

3. 몸

근대적 거주관이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땅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간자신을 더 소중하게 취급하고 인간본위로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땅이 소외되었듯이 인간의 신체가 소외되었던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인간 중심적인 태도라는 것은 인간 밖의 자연과 우주에 대하여 인간을 그 가운데 놓고 만물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인간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켰다는 의미이지 인간의 신체를 포함한 인간 자신을 소중히 하였다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연에 대해 이기적인 입장을 취했을 뿐 스스로의 존재전체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거주관에서의 중요한 과오는 땅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와 일체를 추구하는 입장이 아니고 억압과 지배관계로 일관함으로써 사람을 위해 땅을 죽음에 처하게 했던 그러한 관계짓는 방식이 인간의 신체에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존재를 신체와 구별되는 생각의 부분 즉 이성적 추리 능력을 또 하나의 다른 실체인 것처럼 가정하고 나서 땅과 인간관계에서의 차별적 가치구별의 입장을 또다시 적용하게 된다. 즉 인간의 실체는 이성적인 사고 능력과 같은 것이며 몸은 그러한 이성적 실체가 거하는 껍데기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근대문명이 중세적인 종교와 신의 인간에 대한 억압적 구조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새로운 의미의 가치를 부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할때에 또다시 이성과 신체를 구별하여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땅이 부정되고 인간이 긍정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체를 부정하고 이성을 긍정한 것이다. 신체는 살(Flesh)이 되어 이성에 대한 하급의 존재로 규정되어야 했다.

근대건축은 이성주의 건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성만능적 사고는 근대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극단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성주의와 과학기술문명에 매료된 시대정신이 만든 건축이 근대건축이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당연했었던 문화적이고 신화적인 요소가 근대건축에서는 무참히 절단되어 이성적 보편성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형태와 공간, 그리고 기능을 추구했던 건축이었다. 문화적 각색을 거부하고 순수미학의 깃발아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건축을 탄생시킨 것으로 믿었던 것이 근대건축이었다.

근대주택도 물론 이러한 근대건축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근대건축의 거장들의 주택작품이 그러한 성질을 잘 보여주듯이 장식의 필요없는 벽면, 지저분한 생활용품이 놓인 곳이 없는 깨끗한 공간, 그리고 기계와 같이 용도에 의해 찢라진 기능적 분할이 근대주택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주택과 건축이 사람의 매일의 삶과 신체적 조건에서 유래된 것이기보다 이성적 재구성의 결과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된다.

이성주의 건축이 신체에서 분리된 이성적 재구성을 추구하였듯이 신체에 있어서도 또다시 한가지 기능을 분리적으로 추구하였다. 그것은 시각이다. 근대건축은 눈의 만족을 위한 건축이었다. 시각적 비례효과가 가장 중요한 건축이론이었고 건축을 시각예술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도 서구적 전통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다. 건축은 조각과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으로 감상하는 대상물과 같은 입장의 물건이 된 것이다. 건물 앞에서 사람은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성중심주의는 시각중심주의를 필요로 했고 이 두가지의 분리주의적 경향이 같이 작용하여 근대건축과 근대주택을 만들었다. 시각적 효과의 이성적 재구성, 이것이 근대환경문화의 핵심적 원동력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몸과 이성이 구별된 후에 이성이 추구됨으로 몸을 잃었고 신체의 감각기관 중에 시각만이 분리적으로 강조됨으로써 또한 몸은 잃게 된다. 몸을 잃었다기보다 몸이 도외시된 것이다. 이렇게 몸이 도외시된 건축과 주택은 인류의 역사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다. 반대로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사람사는 곳이 근대건축에서처럼 이성중심적이고 시각중심적이었던 때가 없었다.

인간의 거주함은 전적으로 몸의 문제이다. 거주는 몸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고 거주함은 바로 몸의 거주함이다. 건축은 이성에 의한 결과이기 이전에 몸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건축도 주택도 몸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몸을 위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성도 몸적인 기능이고 몸과 이성은 구별되지 않는다. 집이란 이성이라는 사고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의 삶을 위한 것이다. 건축과 주택에 있어서 몸은 진리가 될 수 있어도 이성은 진리가 되지 못한다. 이성은 몸에 귀속된 상태로서만 건축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건축행위를 위해서 이성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방법과 과정상의 필요이지 의미와 본질에 있어서의 필요가 아니다. 건축의 정당성은 대뇌의 사고능력에서 찾아지기 이전에 몸과 몸의 삶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건축의 본질은 먼발치에서 감상하는 대상으로서의 건물에 있지 않고 인간의 몸과 건물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역동적 느낌에 있다. 이러한 역동적 느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몸이다. 몸 전체의 느낌이지 시각만의 감상효과가 아니다. 건축의 보고 만지고 걸어가고 냄새맡고 듣고 하는 모든 느낌이 몸의 총체적 반응으로서 체감되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만의 전용물이 아니다. 건축은 온몸예술이지 눈의 예술이 아닌 것이다.

서구문화가 동방문화보다 훨씬 더 시각 중심적이고 서양예술이 기본적으로 시각 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근대적 거주관 역시 이성과 시각중심성이 배타적으로 추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우리는 그 결과로서의 몸의 상실을 아쉬워하게 되는 것이다. 몸의 유기적 전체성을 느낌의 주체로 회복하고 거주적 주

체가 어디까지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거주함은 완전히 몸의 문제이며 몸의 요구에 따른것이어야 한다. 사람은 몸으로서만 거주할 수 있고 땅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주택은 이성과 시각과다중환자의 집과 같다. 감성은 약화되고 이성이 팽배해 있으며 몸적 느낌은 약화되고 생각만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마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팔다리든 아이같고 머리와 눈만 비대해진 기괴한 우주인인 듯이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다. 미래의 주택은 더 이상 이성의 독단적 재구성 가능성과 눈의 시각적 효과에 배타적으로 얽매인 집이 되어서는 안되고 몸의 일상적 조건에 의한 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몸의 실재적 요구, 느낌, 몸적인 끈끈한 유대감 등이 모두 기계적 기능으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몸의 크기, 몸의 촉감, 몸의 움직임, 그리고 걸터앉는 곳, 기대는 곳, 만지는 곳, 손 올려놓는 곳, 밟고 올라서는 곳 등 모든 몸의 동작과 느낌이 존중되는 집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몸적 생활의 복합성과 다양성이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능에는 작동의 원리만이 있을뿐 몸의 다양한 체감이 반영되지 않는다. 새집은 새의 몸이 만드는 것이고 지렁이 집은 지렁이의 몸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집만이 사람의 몸과 무관할 수는 없다. 근대주택이 신체적이었던 사실은 극복되어야 할 일이며 답습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4. 여성

근대문명의 땅에 대한 태도와 몸에 대한 태도를 관찰해보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한다. 하나는 남성위주의 사고이며 또 하나는 두 가지의 공존을 허용치 않는 일원론적 사고이다. 땅을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몸을 부정하는 태도 자체가 남성주의와 일원론적 사고의 결과이며 남성주의라는 것 역시 남성과 여성의 공존을 부정하는 일원주의임을 볼 때 남성주의와 일원론이라는 사고방식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음을 관찰하게 된다.

인류문화의 다양한 경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경향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밖에 볼 수 없다. 땅 위에 있었던 대부분의 문화들에서 이만큼 공존과 조화의 원리가 회피되었던 경우를 찾지 못한다. 이러한 일원론적 획일주의 문화가 지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처럼 횡행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원론적 상보주의가 이상한 전통으로 취급되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서구식 일원주의가 병적이라고 할만큼 특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거주문화는 이러한 일원론적 획일주의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땅과 몸의 부정에서 보여지는 논리중심적이고 이성주의적이며, 탈신체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시각중심적인 획일적 경향은 바로 서구식 남성주의의 결과이었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와 상보를 허용치 않는 일원론적 태도이었던 것이다. 조화보다는 지배를 추구하고 타협보다는 착취를 원하는 남성주의가 땅과 몸에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 타자를 인정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입장이 강조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주의로 나타났고 신체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 못하고 지고의 가치를 따로이 신체밖에 설정함으로써 신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사실 모든 문명에서 땅은 여성으로 취급되었고 신체에 대한 관심도 여성적 관심으로 취급된다. 다시 말하면 서구적 근대문명에서는 여성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버림으로 남성주의를 택한 것이다. 한쪽을 부정함으로서만 다른 한쪽이 긍정되지 않느냐 하는 고질적 사고방식의 적용인 것이다. 땅과 몸의 회복은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다.

시각중심적인 경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남자가 여자보다 시각중심적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촉각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서구의 건축관이 다른 어느 문화권보다도 시각중심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남성중심주의적 경향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이다. 시각중심적 경향을 다시 촉각을 포함한 몸전체의 느낌의 문제로 돌이킨다는 것 역시 회피되었던 여성적 측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자신의 신체에 민감해야 하고 자연계와 같은 달력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몸의 여성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남성보다도 여성이 순환적 리듬에 순응하며 본질적으로 더 생태적이라는 사실도 몸의 문제와 관련지워서 상기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여성들은 신체페미니즘적 기쁨과 순리를 남성보다 더 많이 향유하고 있을 것이다. 눈으로 확인되는 명료성과 객관성 대신 접촉으로 느껴지는 친밀함과 교섭의 즐거움, 그리고 아기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보살핌의 느낌, 이러한 내용의 결핍이 바로 근대문명과 근대적 거주관의 문제이었고 이러한 가치의 회복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찰해보면 미래주택이 이념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성의 회복이다. 여성의 회복이란 지금의 근대적 주거관에서 특별나게 문제가 되어야 하는 명제이지 모든 문화권에서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전통적 문화들은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그들 문화의 당연한 덕목으로서 갖고 있었다. 서구적 근대문화만이 여성적인 것을 거부하였고 그 증상이 너무 심각하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와서라도 여성적인 것의 회복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성의 회복은 일원주의적 획일성의 거부이다. 여성의 회복은 남성주의 대신에 다시 여성적 획일주의로 가자는 뜻이어서는 안된다. 무시되었던 여성을 회복함으로써 남성과의 균형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뜻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논리에서 다시 "둘"의 상보성을 돌이키자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아닌 "둘"의 모델이다. 둘이란 같은 두 개가 아니고 다른 두 개이다. 다르되 분명하게 상반되는 두 개이어야 하며 그래서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두개 사이의 차이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조화와 상보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의 패러다임은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에서 유래되고 근거될 수밖에 없다. 이

차이가 존중되고 화합되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비전이 되는 것이다.

거주함은 독립적인 물체성이 물라적으로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주함은 그 본질에 있어서 "관계맺음"이다. 거주라는 행위는 하나가 아닌 "둘"의 문제이고 둘사이의 관계맺음의 문제인 것이다. 거주는 개체의 질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질이어야만 한다. 이 관계함이 기쁨이고 조화이고 창조가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둘사이의 차이가 부정되면 이러한 조화와 창조, 그리고 관계의 기쁨이 사라진다. 근대건축과 주거관은 이러한 "둘의 관계성"이 무시되고 하나지향적 방향으로만 치달았던 거주 문화이었다. "차이"를 부정하고 "하나의 선택"만을 고집했던 거주문화이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생태주의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사상가들 사이에 공통적인 견해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성, 또는 페미니즘의 문제이다. 이러한 견해들 역시 근대문명의 남성적 획일주의에 대한 경고이며 반성인 바, 근대적 거주문화의 속성이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미래의 주택은 다시 "둘"의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 땅의 회복이란 땅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이고 "둘"의 회복이다. 몸의 회복 역시 신체적 현상밖에 설정된 인간의 가정적 실체와 인간의 몸뚱아리와의 관계회복이다. 그래서 몸과 집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이켜지도록 하자라는 것이다.

거주함은 바로 사람의 삶이며 삶이란 땅위에서만 가능하고 몸으로만 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하고 불가피한 사실이 무시되었던 것은 근대적 인간의 어리석음에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어리석음의 치유가 미래주택의 관건이 된다. 지금과 같은 남성주의적 획일성의 증세로 볼 때 그 병은 여성의 회복으로밖에 치유될 수 없으며 그러한 치유를 통해서 "둘"의 차이에 의한 조화와 상보, 그리고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미래주택의 대안이다.